

《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》 김재진 시인 6년 만의 신작 산문집

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

With Love, Nothing is impossible

화제의
신간

당신이 아끼지 않아도 될 단 하나의 말
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.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
사랑과 인생에 대해 진솔하게 풀어낸 성찰과 위안

사랑이란 사물에 온기를 주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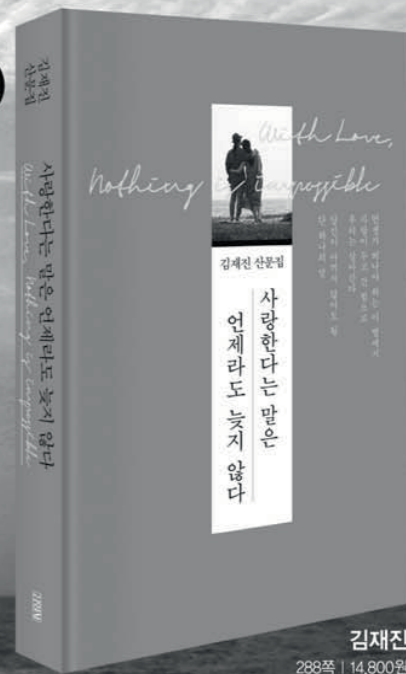
사랑이란 함께 타는 말과 같아 달려도 함께 달리고, 멈춰도 함께 멈춘다.

그 사람이 말 없으면 어디가 아픈가 걱정하고, 그 사람이 찌푸리면 무슨 언짢은 일이 있나 따라서 눈살을 찌푸린다.

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안절부절 못한다. 그러다가 활짝 웃는 그를 보면 덩달아 웃게 된다.

함께 페달을 밟으며 타는 자전거처럼 사랑이란 그와 내가 함께 오르는 언덕길 같다.

- 본문 중에서



김재진

288쪽 | 14,800원